

# '고창 칠암리 고분군' 역사적 가치와 의미

고창군, 도기념물 지정 위한 학술대회 개최... 4개 주제 발표·토론 진행

'고창 칠암리 고분(고창군향토문화유산)'의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창군은 지난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창 칠암리 고분군'은 앞쪽은 네모난 방형이고 뒤쪽은 동그란 원형의 형태가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무덤인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고분이다.

특히 '고창 칠암리 고분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우리나라 전방후원형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됐고, 가장 북쪽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전방후원형 고분은 총 12개 유적 15기 정도로, 고창 칠암리 고분군 외에는 영산강유역의 평지나 낮은 구릉에 단독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고창 칠암리 고분군'은 총 3기가 확인됐으며 비교적 높은 구릉 능선에 입지한다. 또한 매장시설도 돌방무덤(석관형 석실) 형태로, 다른 전방후원형 고분과 차이가 있어 축조 집단의 성격과 배경을 이해하고 마한~백제 문화 연구와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 칠암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전방후원형 고분에 대한 고고·역사 자료 등을 통한 조사성과, 고분의 특징과 축조배경 및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1주제는 2015년 고창 칠암리 고분군을 직접 조사한 임지나 부원장(대한문화재연구원)이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조사성과와 가치"에 대한 발표와 이진희 책임조사원(조선문화유산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고창군은 지난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주제는 이택구 원장(조선문화유산연구원) "한반도 전방후원형 고분형 고분의 특징과 성격"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전방후원형 고분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고, 이에 대해 김낙중 교수(전북대학교)의 토론이 진행됐다.

3주제는 김영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마한~백제, 왜(倭)에 대한 역사기록을 검토하여 "문헌을 통해 본 전방후원형 고분의 축조배경과 피장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문형 책임연구원(원광대학교)의 토론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신민철 학예연구사(국립부여박물관)가 한일 고분유적 보존·활용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고창 칠암리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최규호 학예연구사(남원시청)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은 이영철 원장(대

한문화재연구원)를 좌장으로 진행되어 '고창 칠암리 고분군'이 영산강유역 중심으로 분포한 전방후원형 고분이 전북 고창에서 분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입지와 분포, 구조적 특징과 함께 고창지역에 분포하는 마한 지역사회 구조와 계층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학술적·역사적 가치에 있어 전라북도 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데 공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칠암리 고분이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등과 함께 우리나라 마한·백제문화 특징과 당시 대외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창지역 마한~백제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보존·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 피아니스트 윤혜진 작곡 발표회

'호남의 소리' 26일 한국소리문화전당서 개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혜진의 작곡 발표회 '호남의 소리'가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작곡 발표회는 이리랑과 강강술래, 그리고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주제로 한 기악곡 및 피아노 솔로곡, 박목월 시인의 시 중 나그네, 실물 작품으로 소프라노 성악곡 등 전북의 민요들을 주제로 한 곡들로 준비됐다.



소프라노 김아름, 첼로 김주빈, 퍼쿠션 나승훈, 피아니스트 윤가영·강정금이 이번 작곡 발표회에서 함께 한다.

윤혜진은 "이번 작곡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지역의 문화 예술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면서, 한국의 전통음악들이 계승·발전되고 더 나아가 한국인의 창의적인 음악 어법들이 더 많이 출현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혜진은 전주대학교와 동 대학원

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주제로 한 '6 Variation on a Theme Seaya Seaya Prang Seaya for 1 Piano 4 hands' 등 동서양의 음악을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로 풀어낸 곡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예술단체인 브리타테와 작곡단체인 아드리비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예술시대협동조합, 창작음악극 '전주용궁' 공연

2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진행

예술시대협동조합이 오는 22일 오후 7시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창작음악극 '전주용궁'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주용궁'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주용궁이 육지로 이사를 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화형식으로 풀어낸 음악극으로 용왕의 천수전치가 용궁 이사 3주년 기념과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 변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등 현재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되풀이 생각 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의 주요 운영진으로 연출에 류경호(전주

대 공연방송연기학과 교수), 대본 집필에 김지은, 작곡에 이형로가 참여한다.

예술감독으로도 참여한 이형로 씨는 "전주용궁"은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찾아오는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많은 공감과 위로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2)과 예술시대협동조합(010-5779-511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공연예술분야 창작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창작 작



품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 '사물놀이 한판' 교류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소속 국악원 간 교류공연의 일환으로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업)의 '왔구나~연희어! · 사물놀이 한판'을 12월 1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부산국악원은 영남 춤과 음악을 중심의 작품을 전북지방에 선보이는 기회로 다양한 교류 공연을 펼쳤으며, 이번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들과 호흡하는 연희 무대로, 기악단 연희부 7명의 젊은 예인들이 농악 가락을 무대화한 '사물놀이 한판'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따라서 공연은 기존 사물놀이의 기본에 충실 하면서 선대 연주자들이 물려주었던 가락과

소리를 부산국악원 연희부가 해석하고 그들의 색깔로 재구성하여 연주하는 '사물놀이 한판'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농악의 다양성과 사물놀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축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비나리'를 시작으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지역의 특색 있는 가락을 작품화한 '삼도농악가락'이 이어지며, 놀이가 강조되어 갖가지 기예를 보이는 전통 연희 '관긔'와 민요, 줄타기 등을 함께 구성했으며, 공연은 취하이동 이상으로 전 좌석 무료이며, 관람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및 카카오톡, 전화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 청년 예술인 교류 행사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6~17일 고창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에서 지역 청년 예술인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20명 내외의 각 재단 직원과 4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 예술인 39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예술XESG 라운드 테이블',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아름속의 썸 세션', 'ESG 주제 관련 현장답사(고창 운곡사르스름지 자연생태공원)' 등이 진행됐다.

한편 협의회는 지역별 참여 예술인 추진위원회의 강령회 및 참여 재단 자체평가를 통해 추후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가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문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